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코 10, 9)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0/ 6(일) 연중 제 27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성수예식(축성 67 번)과 10 월 축일자 축하(축가 528 번)가 있습니다.
▶10/ 8(화) 연중 제 27 주간 화요일 (본당 11:30, 공소 17:30)
▶10/13(일) 연중 제 28 주일 (본당 11:30, 공소(미사 없음, 버팔로 성지 순례))

◎은빛 모임
친교 식사후 친교실에서 은빛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함께 하는 노래방입니다.(경연대회 상품도 있습니다.)

◎St. Andrew 장학금 수여식 (대학생 1 명, 고등학생 2 명)
다음 주 미사 중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교중 미사 시간 변경 안내
11 월 첫 주(썸머 타임 해제일)부터 주일 미사 시간이 **11:30 에서 11:00** 로 변경됩니다.

◎현금 봉투 안내
주일 헌금은 반드시 일자가 지정된 현금 봉투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분과장께 꼭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 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새 예비자 가족 소개
4 구역 - 김석원(부), 김지은(모), 김시화(자), 김시환(자)
2 구역 - 하유선(모), 고동연(자)
2 구역 - 이시훈(부), 최은영(모), 이우주(자)

◎ 예비자 교리 모집
11 월부터 시작하는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선교 분과 김한옥 에릭

◎꽃동네 물품 도네이션
꽃동네 도네이션 물품은 반드시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사/선교 분과장 김한옥 에릭

◎꽃동네 축복식및 피정 안내
(문의: 이태은 야고보 수녀님(647-808-3989))
▶**축복식** 일시: 10/15(화) 꽃동네 (6096 Second Orton)
크로스비 주교님 주례하에 축복식이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를 위해 10/13 까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정** (2 인 1 실)
기간: 10/26(토) ~ 10/27(일) 1 박 2 일
마감: 10/23(수) 참가비: \$125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텀블러, 필기도구, 노트, 목주, 겨울 외투, 성서

공소 소식

▶10/13(일) 미사는 버팔로 파티마 성당 현지 미사 (10/12 토)로 대체됩니다.
▶정기 사목회의 일정 안내- 10/27(금) 미사 후.
▶금일 식사는 조예정 카타리나 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먹겠습니다.
▶10 월 공소 세례 축일자 2 명
(김윤정 데레사(15), 이찬희 이냐시오(17))

단체 소식

▶꾸리아 모임 다음 주 10/13(일) 미사 후

구역모임(소식)

1 구역 10/20 일 15 시 대철실
2 구역 10/26 토 12:30 조광학 형제님 댁
3 구역 10/26 토 12 시 친교실
4 구역 10/26 토 18 시 황창환 형제님 댁
5 구역 10/19 토 16 시 하태성 형제님 댁
6 구역 10/26 토 18 시 신명철 형제님 댁
7 구역 10/26 토 17:30 정묘순 자매님 댁

친교 식사

10/ 6: 5 구역 닭개장(\$5/\$3)
10/13: 7 구역 10/20: 1 구역 10/27: 3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63 명)			
주일헌금	\$3445	교무금	\$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75

※교구청 특별 헌금(카나다 성당 발전 기금) \$505

묵주 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0 월 본당 세례 축일자 (36 명)
10/ 1 데레사(김보연, 이현정, 손소영, 이제순)
10/ 2 안젤라(김민신, 손제원, 김민정)
10/ 4 프란치스코(이상우, 박희송, 유경현, 신상해,신정훈, 이창전) 10/5 플로라(김부경, 최다혜, 박인화)
10/ 6 프란치스코(이동규), 마리아 프란체스카(황윤주)
10/ 7 유스티나(이성란), 로사리오(나희진)
10/ 9 사라(박선미, 안은숙), 10/10 다니엘(이지훈)
10/15 데레사(이자영), 소화데레사(도금자)
10/17 루시아(김순례) 10/18 루카(정종만, 한우생)
10/24 세실리아(배영희, 이옥화)
10/27 플로렌시오(최광락)
10/28 시몬(김상표, 도재환, 신철호)
 아나스타시아(원숙미)
10/30 제노비아(강서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0/6	신낙홍 마리아	최두원 스테파노 최다인 안나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10/13	김성수 베드로	송찬 아론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인선 쟈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10/20	박혜영 수산나	이준규 안드레아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신낙홍 마리아 2 독서: 권희진 요안나	이인선 쟈마 박규혜 카타리나
10/27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다희 보나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신낙홍 마리아 권희진 요안나

혼인, 떠남의 여정

대구 교구 가정복음화국 차장
고태권(그레고리오) 신부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유다 전통을 이야기하며, “남편이 아내를버려도 됩니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남성이여성보다 우월하며, 여성은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바리사이들에게 아내는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로 응수하십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떠남은 정서적, 물리적, 경제적 등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은 분명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둘지는 않되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셈이 빨라야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대화보다는 계산기가 먼저 나옵니다. 어느 피정 때 만났던 남편을 먼저 여인 자매님은 “남편을 사업 파트너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줄 때만 좋아했던 먼저 떠난 남편에게 미안하고, 불쌍하다.”라고 울먹였던 모습이 늘 잔상처럼 남아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배우자의 모난 모습, 상처가 보기 싫다고 바리사이들처럼 버리려고만 들지 맙시다. 오히려, 내 배우자의 어두운 상처마저도 안아주고, 사랑하려 노력하며 혼인의 여정을 떠남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결심이다.”라고 합니다.
광야 같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혼인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부부 여러분의 여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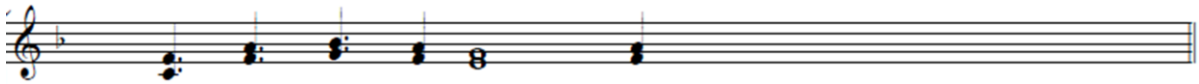
한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27 주일 (2024. 10. 6.)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2,18-2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6(◎ 5 참조)



후렴.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2,9-11
복음 환호송 1 요한 4,12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0,2-16